

현장과 시각

당론 어긋 '소신 투표'



박지경 서울취재팀 차장

미국 하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7천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을 부결시킨 것을 본 여의도 정가는 약간의 신중한 충격을 받았다.

통과를 의심치 않았던 법안이 부결될 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소통 부족'을 이야기했지만 그보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소신투표'를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다.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205표, 반대 228표가 나왔다. 그런데 부결표가 야당인 민주당(95표)보다 여당의 공화당(133표)에서 훨씬 많았다.

물론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거대 금융그룹이 자기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다 말한 것을 왜 국민의 혈세로 보충해줘야 하느냐는 비판 심의를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부시 행정부의 공과를 공유하는 정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그것도, 3분의 2가 넘는 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우리 정치권의 시각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때문에 공화당의 반대 표결을 '소신'에서 찾는 해석이 상당하다. 여의도 정가에서 이를 부러워하는 것은 한국이 라면 달랐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국회는 미국처럼 교차투표(cross-voting) 즉, 자유투표를 일삼하지 않고 있다. 당론으로 국회의원들의 투표권을 짓밟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 같은 투표가 우리 국회에서 행해졌다면 강력한 당론에 의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을 것이다. 또 반대투표를 '반란'으로 규정, 당 윤리위를 소집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소신투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는 민주당 사무총장이지만 15대 국회 때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미경 의원은 1999년 9월 '동티모르 파병동의안'에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의식해 파병하려 한다며 분회의장에서 모든 의원을 철수시켰지만 이 의원의 소신은 국군이 동티모르에서의 민간인 살상을 막고 민주적 선거를 돕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의원은 한나라당을 떠났다.

또 지난 2004년 9월 정부는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렸다. 이에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도 동의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은 "가진 자에게 혜택이 간다"며 이를 거부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투표에서 실패한 민주당 의원은 찬성 당론을 어기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지난 2003년 9월 한나라당 이경근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법안을 제출하자 반대 당론을 어기고 투표하면서 "이 법안은 부유층의 기득권을 환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주 기자가 쓴 '소신투표'란 기사를 보면, 미국 하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7천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을 부결시킨 것을 본 여의도 정가는 약간의 신중한 충격을 받았다.

美 구제금융안 오늘 상원 처리

예금보호 상한액 확대 등 내용 일부 수정

미국 상원이 1일(현지시간) 저녁 구제금융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번 상정되는 구제금융안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장 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례적인 일이다. 관계자들은 존 케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구제금융안 표결 처리에 대해 동료 상원의원들로부터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존 케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하원에서 수정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상원에서 이를 먼저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인들이 1일 시드니 중국 영사관 앞에서 중국산 멜라민 함유 분유를 먹고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의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社 31개 제품서 멜라민 검출 "멜라민 분유 대처 못해 죄송"

중정부 발표...유명 제품도 포함 中 허베이성 정부 피해자에 사죄

중국 정부는 전국의 분유 제조사와 분유 가공회사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0개사 31개 제품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형 유제품 업체인 산위안사의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돼 멜라민 분유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중국 '멜라민 분유' 파문의 진원지인 허베이성 성도 스자좡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번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했다. 왕젠궈 스자좡시 정부 부비서장 겸 대변인은 이날 신화통신을 통해 "스자좡시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피해를 입은 아기와 부모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질검총국은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전국의 290개 제조사 중 154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산위안사 등 20개 기업이 제조한 31개 제품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멜라민 분유 파문은 스자좡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산위안사가 제조한 멜라민 함유 분유를 사먹은 아기들이 신장결석증을 호소하며 촉발된 것이다. 스자좡시 정부는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6일 앞둔 지난 8월2일 산위안사로부터 분유가 멜라민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았으나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은폐해왔다.

오늘 판문점서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2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1일 "북측이 2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의 제의를 수용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며 "2일 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실무회담은 이명박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남북 당국자 회담이다. 군사회담으로는 지난 1월25일 이후 8개월여만에 열리는 것이다.

그는 "현 단계에서 회담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남북관계와 군사회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를 고려해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군단위간 합의했던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군단위간 통신채널 현대화 등의 문제가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측이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일반적으로 비난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럴 경우 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군단위간 합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이 협의될 예정"이라며 "북측은 회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이상철(대령)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등 3명이, 북측에서는 박립수 대좌(대령) 등 3명이 각각 참석한다.

"오하이오주를 잡아라"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오하이오주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조기 투표가 개막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선거인단이 20명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지고 대권을 쟁취한 후보가 1960년 민주당 존 F 케네디가 마지막일 정도로 공화·민주 양당의 후보들은 득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정치 지평도가 민주당을 선호하는 추세에 몇몇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의 표심이 오바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케인이 이곳을 놓치면 대선 가도가 험난해지리라는 관측이다.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이 4년전 승리했던 다른 주에서 매케인을 앞섰고 있고 존 케리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했던 주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오하이오주를 거머쥐면 득표 달성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

美 대선 최대 승부처 조기 투표 개시

오바마·매케인 진영 표심 잡기 총력

두 후보들이 조기 투표에 맞춰 현지를 빈번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운동본부들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TV와 라디오 광고를 쏟아내는가 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정치 지평도가 민주당을 선호하는 추세에 몇몇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의 표심이 오바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케인이 이곳을 놓치면 대선 가도가 험난해지리라는 관측이다.

오바마 진영은 오래 전부터 득표를 높이기 위해 대학 캠퍼스에서 전역의 투표소로 유권자들을 수송하기 위한 카풀을 조직해왔다.

가 발생했고 이라크 전사자도 가장 많은 주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하이오주는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인종적으로도 분열된 지역이어서 오바마의 여건도 좋은 것은 아니다.

보수적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후보가 상원의원으로로서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는데 우려하는 시각이 짙다.

민주당 경선 당시 이곳의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은 오바마를 외면하고 힐러리의 포퓰리즘적 경제 공약에 대대적으로 호응했다.

민주당 경선 당시 이곳의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은 오바마를 외면하고 힐러리의 포퓰리즘적 경제 공약에 대대적으로 호응했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매케인이 다소 앞서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하이오주는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인종적으로도 분열된 지역이어서 오바마의 여건도 좋은 것은 아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branch locations, and a detailed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features.

Advertisement for overseas job training. Features a large image of students, text about 'JAVA 프로그램 개발자' cou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재)호남직업전문학교.